MakerSpace AI Copi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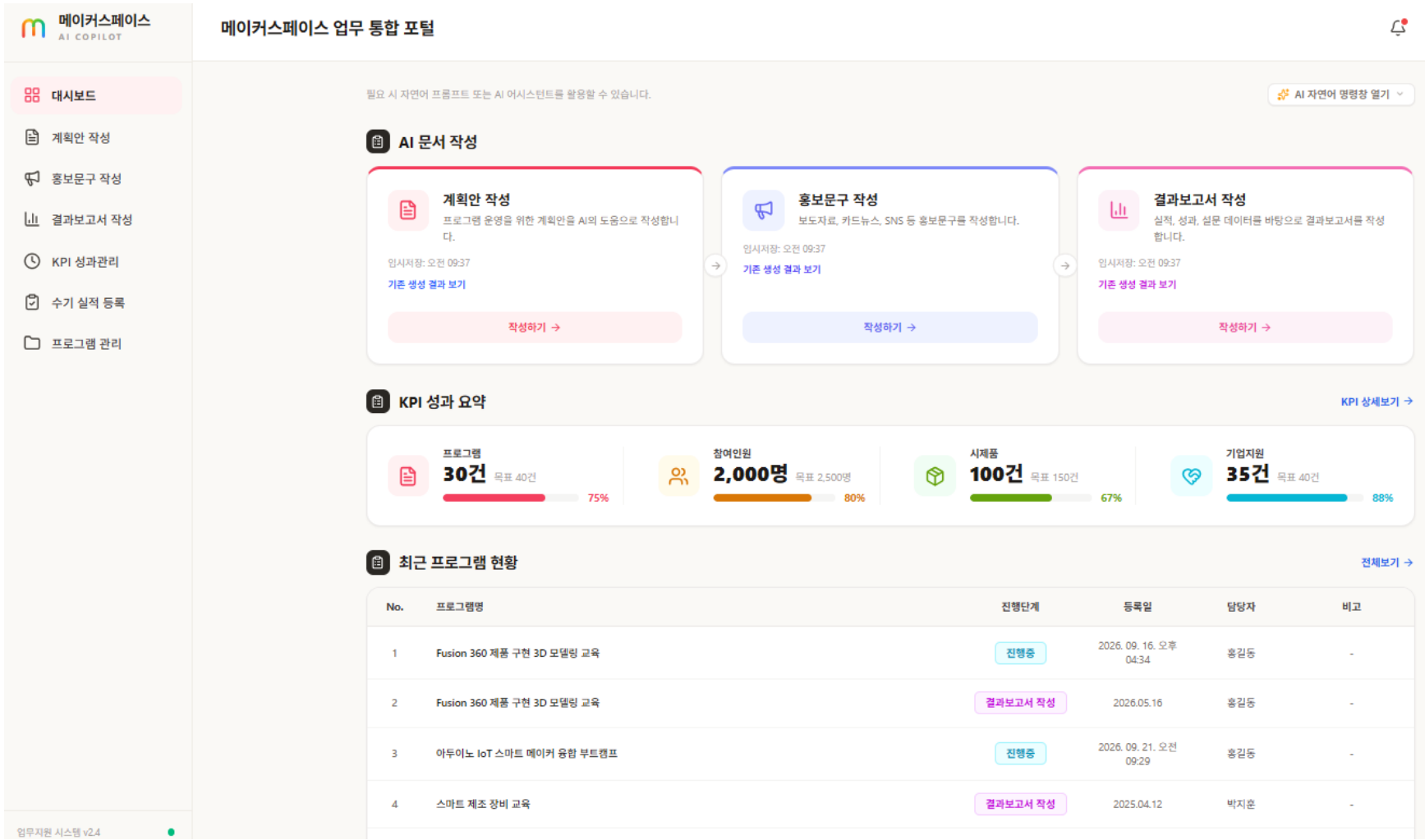
생성형 AI 기반 계획안·홍보·결과보고 자동화로 공공사업 업무 생산성 향상

업무 생산성 개선 | AI 활용 사례

한 줄 소개

반복되는 계획안·홍보·결과보고 업무를 생성형 AI 기반 통합 도구로 구현해 문서 작성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인 사례

Google AI Studio (Gemini) | ChatGPT | Claude



● 계획안 작성 ● 홍보문구 작성 ● 결과보고서 작성 ● KPI 성과관리

핵심정보 1회 입력 -> 다음 행정 단계로 연계

반복 행정업무를 하나의 AI 업무 흐름으로 연결

계획안 작성 화면

기존 업무의 문제

- 프로그램마다 계획안, 홍보문구, 결과보고서를 반복 작성
- 과거 문서를 찾아 복사·수정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
- 같은 정보가 문서별로 반복 입력되어 누락·불일치 가능
- 담당자마다 문장과 형식이 달라 문서 품질 편차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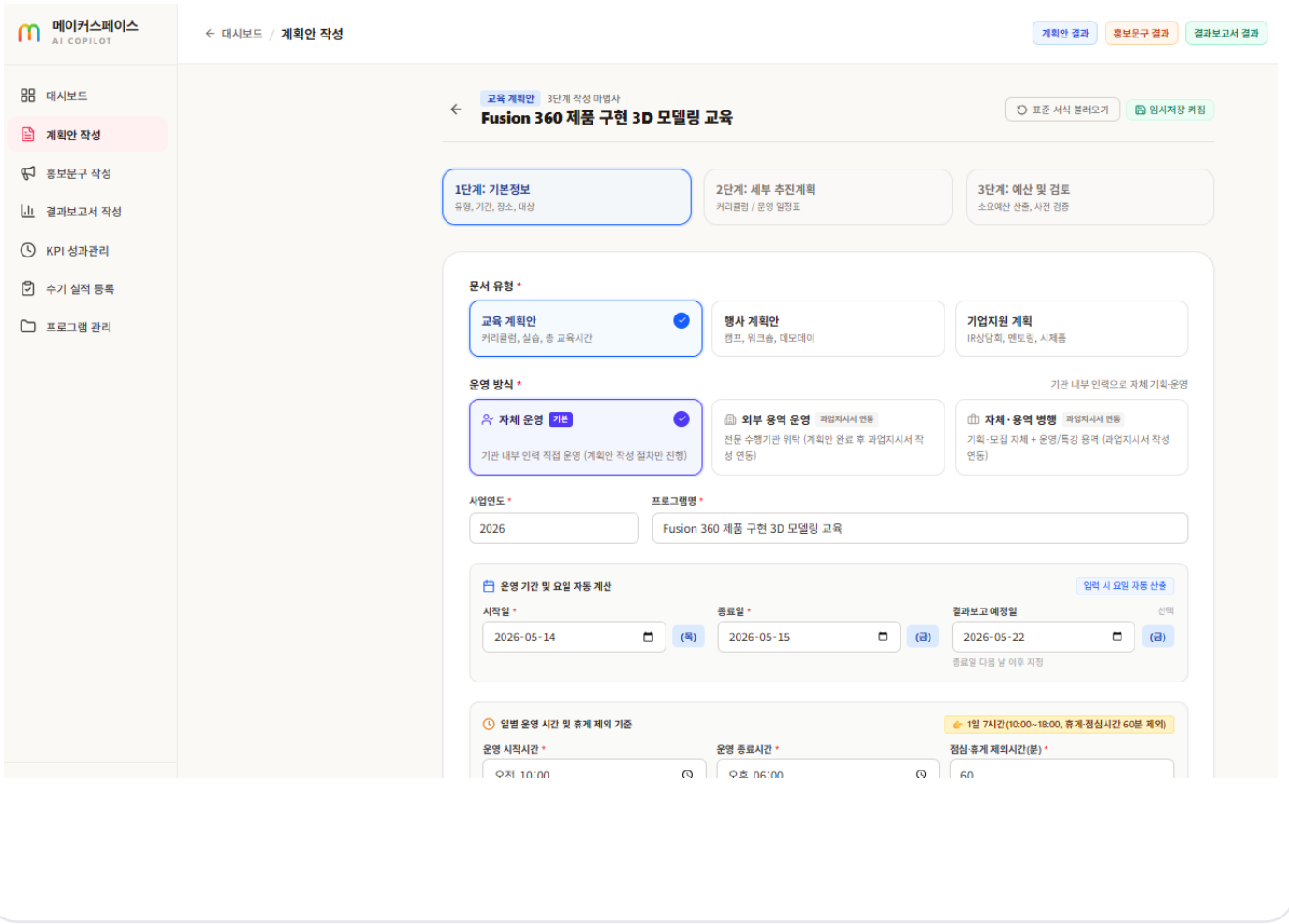
AI Copilot 적용 방식

핵심 사업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계획안 초안을 생성하고, 저장된 정보를 홍보와 결과보고 단계로 이어서 활용합니다. AI가 완성문서를 대신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검토·수정하는 협업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업무 흐름

핵심정보 입력 -> AI 계획안 생성 -> 담당자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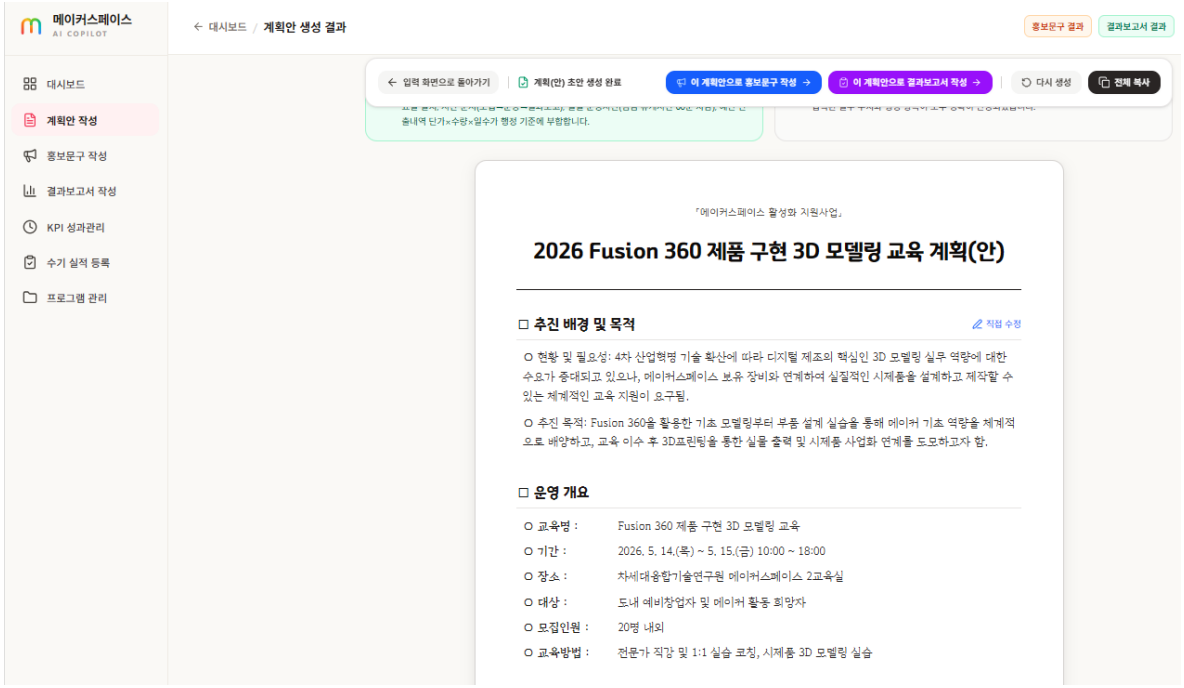
홍보 연계 -> 결과보고 연계 -> KPI 확장



※ 화면의 일부 수치와 데이터는 기능 시연을 위한 테스트/예시 값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을 기관용 문서 구조로 변환

AI 생성 결과 예시



생성되는 문서 구성

추진 배경 및 목적

운영 개요

세부 추진계획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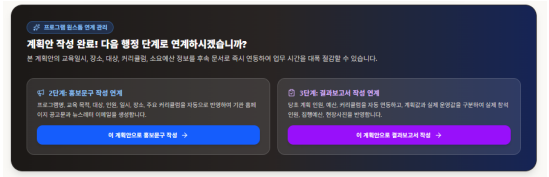




계획안 생성 완료 후 같은 정보를 홍보문구와 결과보고서 작성 단계로 바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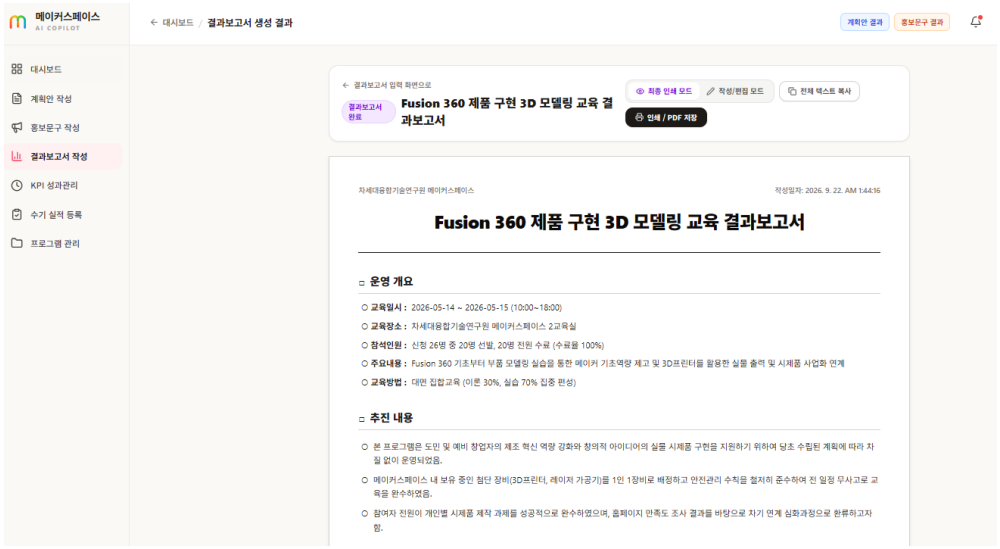
계획안의 정보를 홍보와 결과보고에 재사용

홍보·결과보고 생성 예시





홍보문구 자동 생성



결과보고서 자동 생성

문서 자동화에서 성과관리까지

반복업무 단축

핵심정보를 기반으로 초안을 즉시 확보하여 기존 문서 검색·복사·수정 과정을 줄임

문서 품질 표준화

계획안·홍보·결과보고서를 일정한 구조로 생성하고 담당자가 최종 검토·보완

업무 흐름 연결

계획안에서 입력한 정보를 다음 단계에 재사용해 중복 입력과 누락 가능성을 낮춤

나만의 방식 / 차별점

1. 단순 프롬프트 활용이 아니라 실제 행정 프로세스를 기능 단위로 분석
2. 계획안 -> 홍보 -> 운영 -> 결과보고의 업무 흐름을 시스템에 반영
3. AI가 임의로 판단하지 않도록 입력정보와 문서 구조를 중심으로 초안 생성
4. 생성 결과를 담당자가 직접 수정·검토하도록 설계해 정확성과 책임성 유지
5. 비개발 실무자가 생성형 AI와 로우코드 도구를 활용해 직접 업무지원 도구 구현

향후 확장 - KPI 성과관리

현재는 계획안·홍보·결과보고서 작성 기능을 중심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시설·장비·네트워킹·시제품 지원 등의 실적 데이터를 연계해 KPI 및 성과관리 대시보드 기능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KPI는 임의의 지수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연차평가 기준을 분석해 자동 집계 가능한 항목과 담당자 수기 입력 항목을 구분하여 설계할 예정입니다.

다른 조직에도 적용 가능

반복 문서가 있는 조직이라면 문서 유형, 공통 입력정보, 표준 양식을 정리한 뒤 생성형 AI와 연결하여 유사한 업무지원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공공기관·기업지원기관 등에서 계획 수립부터 홍보, 운영, 결과보고, 성과관리까지 확장 가능한 구조입니다.

※ 화면의 일부 수치와 데이터는 기능 시연을 위한 테스트/예시 값일 수 있습니다.